

[기조발제]

국민주권시대에 시민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 양시모(노원구 구립도서관 총괄관장)

1. 국민주권시대의 의미

♣ 민주주의는 정부형태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동생활 양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 존 듀이(미국 교육학자)

1)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직접적인 주권행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를 지칭

2) 반쪽짜리 국민주권시대 - 상징적으로는 국민주권이 발휘되는 느낌(국민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청와대)이나, 제도 개선(완전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정책결정 투표 제도 등)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3)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 조직화된 시민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통제하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사회를 말한다.

4) 온전한 국민주권시대의 도래를 위해 시민력 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87년 6월 항쟁 이후	2016 촛불혁명 이후
• 직선제 민주주의 실현(선거 민주주의)	• 제도로서 민주주의 변화 없음
• 주민 소환권x, 주민발의x, 정책결정투표 x	• 정치권은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 소홀
• 정치권 중심 민주주의 운영	• 서울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시민 주도 민주주의 활동 시작
• 저항적 시민력 잠재	• 간헐적 저항에서 일상적 자치로 시민력 성장 -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시민력 싹틔

2.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 ♣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 샤프츠버니(미국 정치학자)
- ♣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 - 프리드리히 에버르트(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 1)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아하는 시민? → 무비판적이고 투표에만 잘 참여하는 시민
- 2)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가 기피하는 시민? → 비판적 시민, 조직적으로 학습하는 시민, 생활 속 민주주의자
- 3) 국민주권시대의 시민? → 저항권을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시민력을 행사하는 시민, 권력에 대한 통제력 있는 시민, 민주주의 향유 능력이 있는 시민, 사회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민.

◇ 저항권에만 머무는 시민력의 한계

저항권은 반민주 정부를 전복시키고 형식적 민주정부를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수 정치집단의 권력독점으로 치닫는다.

민주사회는 인권의식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시민이 공동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넘는 사회이다. (차별과 특권을 생활 속에서 거부하고 연대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국민주권 시대의 시민력은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고, 민주정부를 지켜내고, 자신의 삶을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말한다.

3. 시민력 성장의 역사

- ♣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프랑스 사상가)

1) 17c~18c 계몽주의 사상(홉스, 로크, 루소 등)과 시민 저항권

가. 부르주아 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신분제도의 철폐와 왕정 타파를 외치는 민주주의 사상이 대두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권을 강조함으로써 유럽의 중세 시대를 지배한 전제군주와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학의 족쇄로부터 인간 이성의 해방을 주창)

나. 프랑스 혁명의 계기가 되었으며 민중들에게 지배 계급의 착취와 억압은 혁명을 통해 깨부수어야 한다는 강한 사회 개혁 의지를 심어주었다. 억압적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 현행헌법의 저항권 조항**
 현행헌법에는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1987년의 개헌협상과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저항권규정을 대신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다. 따라서 성공하면 자연법상 권리로 저항권이 인정되고, 실패하면 소요죄나 내란죄 등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2) 학습권의 획득과 근대 도서관의 역할

학습권	
지배층	교양 학습, 통치방법 학습
평민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모순인식 학습, 교양학습, 개인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학습. 아직도 한국사회는 개인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학습을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 많음(각 시도 평생교육종합계획 참조).

- 가. 계몽주의 사상은 서점과 회원제도서관을 통해 광범위하게 평민사회에 전파되었고 커피하우스, 살롱 등을 근거지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신분제도가 철폐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시민적 의식으로 무장하였고,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적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 나. 프랑스 대혁명이후 1793년 파리국립도서관은 3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제헌의회 결의로 세계최초 민간도서관으로 개방하였고, 1797년 인쇄·출판의 자유까지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시민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 다. 민주정부를 받쳐주는 힘은 교육을 받고 견문이 넓은 시민의 존재이다. 유럽의 혁명정부는 공교육 실시, 공공도서관 설립 등을 통해 시민력의 성장을 꾀했다. 지식의 평등한 보급을 위해 1850년 영국의회는 공공도서관법을 통과시켜 유료 회원제도서관을 대신하는 무료 공공도서관 시대를 열었다.
- 라. 반민주 정부는 보편적 지식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확산을 권장하지 않고, 공공도서관을 독서실처럼 기형적으로 운영하였다.

3) 현대 민주주의 정립과 참정권의 역사

- 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이후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참정권이 보장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나. 참정권은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일괄 부여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조차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 → 일반 성인 남자 → 노예 남자 → 성인 여성] 순으로 긴 세월을 거쳐 20C 중반에야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다. 나라별 '여성 참정권 획득 현황'

연대	국가
1800년대	뉴질랜드(1833, 피선거권은 1919년)
1900년대	핀란드(1906, 유럽최초 보통선거, 1907년 세계최초의 여성의원 배출(19명))
1910년대	노르웨이(1913), 덴마크(1915), 소비에트연방(1917), 캐나다(1918), 영국(1918, 30세 이상. 21세 이상은 1928년), 독일·네덜란드(1919)
1920년대	미국(1920, 노예는 1870년), 미얀마(1922), 에콰도르(1929)
193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1930), 태국·우루과이(1932), 터키·쿠바(1934), 필리핀(1937)
1940년대	프랑스(1944, 남성은 1848년), 일본(1945), 북한·중국(1946), 한국(1948), 인도(1949)
1970년대	스위스(1971)
1990년대	카타르(1999)
2000년대	오만(2003), 쿠웨이트(2005), 아랍에미리트(2006), 부탄(2008)
2010년대	사우디아라비아(2015)

4. 시민력 향상 왜 중요한가?

♣ 위대한 서울은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든다. - 2016년 서울시 평생교육종합계획 발표 중, 박원순

1)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해소 - 독재자들도 민주주의를 얘기 한다.

⚡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는 조국에 민주주의는 사치다. - 박정희

⚡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해서 무슨 좋은 점이 있겠는가. - 마르코스

⚡ 민주주의는 이론은 아름답지만 실행에 옮겨보면 오류투성이다. - 뭇솔리니

- ♣ 우리의 정체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이다. - 마오쩌둥
- ♣ 모든 체제의 수호자들은 자기 체제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려 든다. - 조지 오웰
- ♣ 지상의 천국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지옥 외에는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다. - 칼 포퍼

민주주의에 대한 정체(굴곡)된 상식	국민주권시대 민주주의 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는 일을 더디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산업역군은 독재시대의 요구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은 매로 다스려야지 토론의 상대가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인권의 주체이고, 어려서부터 주권자로 대우받고 자라야 온전한 시민으로 성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 승자독식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보장하여야 한다. • 다수결은 정책의 순번을 정할 때 필요한 하나의 절차이지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칼날이 아니다. 단순한 다수결 원칙, 승자독식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립과 결정은 전문가와 정치권의 영역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 연구와 검토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지 결정권은 이제 주권 국민이 행사하는 시대가 왔다. 시민들은 정책을 쉽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전문가나 대표를 원한다. • 대중지성시대를 맞아 시민들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의 발달과 집단지성, 대중지성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가 실현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민주주의는 빨갱이고 자유민주주의만이 참 민주주의다. • 있는 놈들끼리 다 해먹는데 서민들은 정치할 시간도 돈도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촛불혁명으로 6.25 참전세대조차 민주주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서민들도 정치할 수 있는 완전선거 공영제, 주민발의 참여제도 등과 마을단위 학습공동체를 통해 일상적 정치참여의 길 모색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군대, 학교에서 민주주의는 이상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독재정권의 시혜로 성장한 한국 재

뿐이다.	벌의 기업문화는 비민주적 군대문화의 판박이다. 그곳은 평범한 직장인을 비민주적으로 재교육시키고 있다.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교육계 또한 학교문화를 전체주의적 문화로 관리하고 있다. 시민력의 성장으로 기업, 군대, 학교 내 인권 개선을 제도화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인민독재도 민주주의다.	• 민주주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 민주주의 제도에는 사회권이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양극화를 초래했고, 서민의 뒤통은 사라졌다.
•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	• 위임은 초기엔 편안하지만 주권은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곧 빼앗긴다.
• 현실은 목소리 큰 집단이 먹힌다.	•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의사 반영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파이가 뻥한데 공평한 것이 가능한가?	• 승자 편에 서서 얻어먹다 보면 시민의 연대는 무너지고 1대99 사회로 가게 된다.
• 피도 안 마른 애들에게 투표권이 말이 되는가.	• 지식문화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청소년 층들의 사회적 판단력이 오히려 초고령자들 보다 선명할 수도 있다.

2) 대의제 민주주의의 수정이 필요하다

- ♣ 민주주의란 다수결 이상의 그 무엇이다. - 토머스 제퍼슨
- ♣ 민주주의란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점심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과 같다. - 벤자민 프랭클린

가. 근대 시민혁명이후 직접민주주의는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대의제민주주의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나. **정부가 온라인 정치플랫폼을 개설하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발의, 주민소환, 정책투표가 가능하다.** 21C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식이 보편화 되고 실

시간 온갖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모집단이 커도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다. **모든 시민은 주권자**로서 일상적 권리행사를 통해 개인적·사회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3) ICT 시대 정보 주권 확보 시급

가. 오프라인 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인권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 비중이 높아진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정부의 방조에 가까운 방치로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사냥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다. 거의 수백만, 수천만 개의 개인 정보가 사기업의 실수로 보이스 피싱 업체 등에 넘어가 개인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은 슈퍼에서 빵 하나 훔친 절도범에 대한 처벌만도 못하다.

나. 페이스북, 구글 등 다국적 온라인 기업에 의해 세계적 규모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무작위로 수집되고 있는 현실은 한 개인의 힘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빅브라더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력의 향상을 통해 상응하는 국가적·국제적 대책과 조치가 시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오프라인에서 강화된 인권보호가 온라인에서 관철되지 않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통제 하에 있음을 말해 준다. 국민주권시대의 시민은 온라인 주권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보인권

“정보화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4세대 인권의 하나로 불리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는 않았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수집하고,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기정보 통제권으로 이해한다.” - 권건보의 연구(정보인권의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헌법학 연구 18권2호)

5. 시민력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 교육에서 출발하여 생활로 정착하다

♣ 사회진보는 기본적으로 제도보다 사람의 의식 수준 내지 자질에 달려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 스웨덴 민주주의는 학습동아리 민주주의다 - 올로프 팔메(전, 스웨덴 총리)

♣ 성찰없는 삶은 위험하다(독재자의 하수인을 낳는다) - 한나 아렌트

1) 시민 자의식 배양 인문학 강좌 - 차별과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사

회 문화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인권과 공공성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일상 생활속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민의식 배양

2) 다양한 지식기반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팅

홀로 있는 시민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마을 단위에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기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은 플랫폼 역할을 한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모이는 독서동아리, 리딩인, 시낭송모임, 인문강좌 졸업생, 마을여행 길라잡이 등 다양한 주민들이 민주적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연계시켜준다.

3) 생활 습관화 : 인식의 개선에서 멈추지 않고 민주주의가 생활로서 정착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 마련

- 가. **민주의식을 증진시키는 감성적 표현, 활동 생활화하기** - 공감, 연민, 배려, 수용, 환대, 소통, 협력, 나눔, 인정, 존중, 신뢰, 정의, 안정, 사랑, 아름다움, 아량, 호의, 감사, 겸손, 동정 등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진행
- 나. **시민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연건 조성하기** - 민주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하루 일과에서 저절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힘)
- 다. **지역 시민 단체 등의 실천 활동과 연결하기** - 청원, 서명, 후원, 지원, 민주올레 참가, 기념일 행사 참가
- 라. **모든 평생교육에 민주인권 교육 수반** -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교육시스템에 시민력 강화 교육을 통해 세대별, 지역별 민주주의 인식 차이 해소
 - ① 인격적으로 배려 받고, 공감토론 속에서 자란 아이 → 훌륭한 시민
 - ② 각종 직업능력 개발 교육 과정에 인권, 노동법 교육 추가
 - ③ 어르신 교육에 선배시민 교육 추가
 - ④ 비뿔어진 욕망 관리 프로그램
 - ⑤ 다양한 유형의 토론진행자 양성 과정

4) 민주적 토론의 생활화 - 공론의 장 일상화

- 가. 마을공동체에 학습공동체 내용 추가
- 나. 함께 토론, 결정하기 - 갈등현장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도서관은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관련 도서, 자료, 정보를 제공
- 다. 사건, 이슈에 대해 관성적 수용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누군가와 토론하기
- 라. 비판적 문제 제기에만 머물지 말고 공공성에 입각한 공감적 대안 찾기

5)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화와 시민력의 상호작용

- 가. 법, 제도, 역사 학습
- 나. 제도개선을 통한 민주적 생활 여건의 확장 : 경쟁 중심 입시제도 개선, 직종 간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장제도의 현실화(국민연금 국가부담 강화, 실업급여 현실화 등)

- 다. 제도개선과 시민력을 통한 정치권의 관행 개도 : 완전 선거 공영제, 국민소환제도, 비례 대표제 강화, 관행적 위법 정치인에 대한 삼진아웃제
- 라. 시민 정치활동 폭 확대 : 직접민주주의 공간 확대, 정부·국회 차원의 온라인 정치플랫폼 개설, 시민의 정치권 진입 장벽 완화

6) 정보통신 민주주의의 실현 - [은평구립도서관 사서 김인옥 발제]

♣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와 힘이 되는 사회이다. - 앨빈 토플러

- 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유통방식의 변화로 정보홍수로 불리는 시대에 한국사회의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미디어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미약하다.
- 나.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명을 가진 공공도서관은 정보인권의 개념을 배우고 함께 모여 시민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 다. 정보과잉 시대 핵심 교육 모델이자 정보 복지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용하여 국민주권시대 시민력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필요하다.
- 라. 도서관은 전 연령대가 이용가능한 배움터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SNS를 통한 가짜뉴스 수용 등으로 사회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대표적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정보인권 교육이 중요하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정보인권 감수성 강화

- 정보의 생산과 전파의 과정을 알아보며 정보화 시대 정부와 기업 등 권력의 정보중양 집중화에 대해 문제의식 함양
-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가공, 활용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유도
- 정보화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중양 집중화된 정보의 통제 권력을 견제 할 수 있는 ‘사본을 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 강조

- 마. 정보화 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시민양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또한 국민주권시대의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필수기관이기도 하다.

[발표]

노원구 구립도서관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 사례공유와 평가

- 김선영(불암도서관 관장)

1. 노원구 구립도서관의 시민교육 과정

1) 상식의 파괴 - 한국 교육제도에서 배우지 못한 인문학, 민주주의 기본 가치(자유, 평등, 연대) 공감

- 가. 자본주의의 소모품이 아닌 주체로서 '나' 찾기
- 나. 주체로서 자녀를 바라보기
- 다.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의식
- 라. 함께 읽기와 사회적 독서 그리고 연대에 대한 기초 인식
- 마. 제 12기 책읽는 어머니 학교 강의 내용

구분	주제	민주주의 관련 내용	강사
1강	우리가 꿈꾸는 도서관 (OT)	상식의 파괴 : 민주사회의 가치관	양시모 (총괄관장)
2강	그림책의 매력	그림책과 자주적 책읽기	이루리 (작가)
3강	모욕사회를 넘어서려면	인권 사회로 가는 길	김찬호 (교수, 작가)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 아이들도 노동자가 될 것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	하종강 (교수)
4강	뇌발달과 부모의 역할 - 읽기와 뇌 발달	아이의 뇌를 망치는 조기교육	신성욱 (작가)
5강	견학		
6강	도서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연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독서를 통해 주체적 자아 형성)	김경집 (교수, 작가)
7강	지식정보화시대의 청소년,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청소년 독서 활성화 대책	백화현 (前교사, 작가)
8강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	연대하는 시민 -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유범상 (교수, 작가)

9강	함께 읽기의 힘	사회적 독서, 함께 읽기의 힘	김은하 (작가, 독서교육 전문가)
10강	마을공동체와 도서관	마을에서 일상적 연대의 체험	고병헌 (교수, 작가)

2) 심화 과정

가. 주권자 의식, 주권자로서 능력 키우기

- ① 세상 똑바로 보기(책 : 필링의 인문학, 강의 8강, 유범상)
- ② 스스로 생각하기(누군가에 의해 입혀진 나의 생각 뒤집어 보기
- ③ 연대 하기

구분	강의 내용
1강	신민에서 시민으로 : 나는 지금...
2강	무지 : '내탓이오니즘'과 열정페이
3강	의존 : '먹고사니즘'과 순응
4강	체념 : '나만손해이즘'과 냉소
5강	자각 : 시지프스의 깨달음과 저항하는 우리
6강	실존 : 이상과 일상이 되는 상상과 '국민의 집'에 대한 구상
7강	낙관 : '근거없는 낙관주의'와 토론하는 동료들의 즐거운 소풍길
8강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응을 넘어 대안으로

나. 사회적 독서

- ① 강의 : 문학작품을 통해 본 자본주의와 그 속의 사람들(6회, 유범상)

구분	제목	참조도서
1강	『왕자와 거지』(마크 트웨인)로 본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	『왕자와 거지』(마크 트웨인) 『올리버 트위스트』(찰스 디킨즈)
2강	『적과 흑』(스탕달)으로 본 성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다	『적과 흑』(스탕달) 『레미제라블』(빅토르 위고)
3강	『피노키오』(카를로 콜로디)로 본 새로운 인간, 천국이 예정된 이기적인 착한사람	『피노키오』(카를로 콜로디) 『로빈슨 크루소』(대니얼 디포)
4강	『변신』(프란츠 카프카)으로 본 민주적인 차별의 위험한 세상	『변신』(카프카) 『세일즈맨의 죽음』(아서 밀러)
5강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로 본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영혼없는 기계의 세상	『강철군화』(잭 런던)
6강	『유토피아』(토마스 모어)로 본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 대한 상상	『유토피아』(토마스 모어) 『페스트』(카뮈)

- ② 마들책마실 광장(대토론회) : 1회 **차별**(『푸른 눈 갈색 눈』), 2회 **연대**(『지금은 없는 이야기』)
- ③ 사회적 독서 동아리 활동

다. 민주주의 사상 인문학

- ① 사상사 연강(8회, 이상수) : 솔론 ~ 칼 포퍼

구분	강의 내용
1강	솔론과 페리클레스 : 고대 그리스와 민주주의의 기원
2강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3강	키케로와 아우구스티누스 : 이상 국가는 언제 완성되는가
4강	마키아벨리와 홉스 : 국가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5강	로크와 루소 : 주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6강	토크빌과 밀 : 민주주의를 통해 무엇을 지킬 것인가
7강	마르크스와 아렌트 : 독재는 언제 출현하는가
8강	카를 포퍼 : 열린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 ② 시민교육이 희망이다(4회, 장은주)

구분	강의 내용
1강	메리토크라시(능력지상주의)와 한국의 교육현실
2강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과연 좋은가?
3강	시민은 누구인가?
4강	미래세대의 자존감을 살리는 민주시민교육

라. 민주주의 선진국 들여다 보기

- ① 독일 사회복지문화 아카데미(5강)

구분	내용	강사
1강	독일의 주거 문제로 본 독일 사회 '사회공공성'의 의미 - 독일은 왜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조성복
2강	독일의 환경 정책과 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 - 프라이부르크가 어떻게 유럽의 환경 수도로서 자리 매김하게 되었는가?	홍선기
3강	독일식 정당 제도와 정치 문화의 발전사	정호원

4강	독일의 교육 제도와 일자리 문제 - "독일에서는 (대학)학력이 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가?"	정미경
5강	독일의 언론 정책과 미디어	서명준

3) 실천 프로그램

- 가.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작은 실천의 시작 : 리딩인 활동, 사회적 독서동아리 참여하기, 마을활동 참여하기 등
- 나. 공정무역 체험 : 저개발국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
- 다. 만들책마실 광장 : 민주, 인권, 사회적 이슈 대토론회
- 라. 마을공동체 활동 : 연대에 대한 일상화
- 마. 인권휴먼라이브러리 : 인권 감수성 키우기

구분	인권 휴먼북 구성	휴먼북
1차 (2015)	인권 특강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주제 - 각 분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노 아께미(다문화 가정) • 문기주(쌍용차 해고 노동자) • 박은희(세월호 유가족) • 김성수(장애인단체 대표)
2차 (2016)	인권 특강 : 하종강(성공회대 노동대학학장) 주제 - 노동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진숙(홈플러스 노조 서울사무장) • 박정훈(알바노조 대표) • 이상훈(학교 비정규직 사서)
3차 (2017)	인권 특강 : 하승수(녹색당 대표) 주제 - 청년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하린(알바하는 청년) • 하정훈(예술가 청년) • 박은호(창업준비하는 청년)

- 바. 민주기념일 전시회, 평화축제 : 한국 민주주의 살아있는 역사 체험하기

2. 노원구 구립도서관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

1) 성과

- 가.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니 다양한 접근점에서 시민적 자각을 느낄 수 있었다.(어떤 분은 소설에서, 어떤 분은 우화집에서, 어떤 분은 르뽀에서, 어떤 분은 사상사에서..)
- 나. 천천히 차곡차곡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수용이 진행되었다.
- 다. '책읽는 어머니 학교'라는 기초과정이후 심화과정과 지속적인 사회적 독서 활동, 소소한 실천 활동을 통해 생활민주주의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2) 극복해야할 과제

- 가. 강고한 입시제도, 재벌기업 취향 취업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 차별과 경쟁을 비판하지만 내 자식 문제에 가서는 멈춰 서 버리는 현실의 벽. 생활 속 민주주의 어디까지 가능한가?
- 나. 교육 제공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생활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나, 그에 필요한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
- 다. 도서관 일반 사업 등과 겹쳐 개설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 라. 우리는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 단체, 도서관 직원들의 일상 삶의 모습
- 마. 현실 공공조직과 정치권의 다양한 비민주적 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있다.

시민교육과 도서관

구산동 도서관마을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우리 사회의 극심한 냉전형 이념 대립이 낳은 갈등으로 교육 현장은 가능한 한 모든 종류의 정치적 사안들을 회피하려고 한다.
- 참된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은 인간 개개인이 지닌 자기 삶에 대한 주권성과 그 불가침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그 출발점이자 목적으로 삼아야한다.
-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차이,이견에 대한 관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역사 문제처럼 사회적,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인문교육이 시민교육

- 그리스 아테네 시민형성 과정 '파이데이아', 로마 '후마니타스'-도시국가에서의 교육은 인문교육, 인문교육이 곧 시민교육.
- 스웨덴 -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을 위한 성인고등학교 제도화.
- 북유럽 국가들은 평생학습참여율 자체도 높지만, 문해력이 떨어지는 집단의 평생학습율도 함께 높다. 이 국가들 모두 참여지향적 민주주의와 끝장토론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
-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의 학습양식의 관계를 보여줌.

평생교육의 격차 심화

- OECD가 발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 결과,
- 영국은 55-64세 및 16-24세 간의 능력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임(그 차이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다). 이런 격차는 세대간 갈등과 불소통으로 나타나는 한편, 시민사회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걸림돌.
-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이 평상시에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문해력이 낮을수록 그 참여비율이 급격히 떨어짐.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

- 통일 전 극심한 이념대립에 시달렸던 독일은 나치로부터 해방된 직후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 을 세우자마자 다시는 나치 같은 세력이 집권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연방정치교육원' 을 설립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도서관과 시민교육

- ▶ 민주주의의 성장과 시민들의 계몽이 공공도서관의 목표라면, 얼마나 많은 자료가 대출되었는가 하는 것만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봉사한 독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좋은 시민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성공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에드 디 앤절로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야만인들"
- ▶ 근대 공공도서관들은 본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진작시킴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부단히 재정의되어야 한다.
- 전국 곳곳에 인프라를 갖춘 공공도서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마을이 만든 구산동도서관마을

- 주민들의 자각과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도서관
-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과 건축 과정 전반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함.
- 시민들이 참여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과정 전반이 제도적으로 보장됨.
- 도서관이 시민에 의해 요구되고, 시민의 것이 되는 과정을 잘 구현함.

협동조합 : 느리지만 함께

-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구립공공도서관.
- 필요를 느끼고 더 나은 시스템을 갈망하는 자가 협동조합을 만든다.
- 기존 시스템과 다르기에 소란스럽지만,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평등한 새로운 질서를 생각해본다.

학습하는 사서

- 매월 하루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 실시
- 매월 주제별로 한 권의 책을 읽고
- 전체 직원들앞에서 발표하기
- 직원, 사서들이 토론한 내용을
- 블로그에 게시
- 도서관 정보봉사, 도서관학 고전,
- 협동조합, 마을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의
- 강의실시.



책과 전시와 주제 강연이 함께하는 주제강연

-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주제 선정과
- 전문가 초청 강연
- 페미니즘(2017.2) 이민경 강사 초청
- 기본소득(2017.3) 박주민 국회의원
- 청년주거(2017.4) 지역주거협동조합
- 두꺼비하우징
- 평화(2017.6)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통일(2018.10)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길위의 인문학(불광문고, 허스토리마실)
- 연간 기획 행사(지역 전문가 단체들이 기획에 참여), 입트페/기본소득/주거 관련 전시 및 콘서트 등
- 지역사회 작가 꾸준히 발굴 : 백미숙, 윤성근, 김성현, 김혜진 등
- 은평구의 다양한 소식을 알 수 있는 거점 역할

길위에서 찾는 우리 역사

- 2018주제 : 동학에서 해방까지
-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자취를 따라서
-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들
- 역사에서 조명받지 못한 좌파,
- 무정부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조명

2018 길 위의 인문학
**동학에서 해방까지
 독립의 길**

1	강연	8월 30일(목) 9월 12일(수)	19:30	동학농민혁명과 민초의 삶	이윤영 서강대 교수
	담방	9월 15일(토)	종일	정음 권병준서기 - 무장현관이외음성 등	이경향 가톨릭대 교수
특강		9월 20일(목)	19:30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	조순희 교수
2	강연	10월 4일(목) 10월 11일(목)	19:30	꺼지지 않는 열정, 독립운동	안재성 교수
	담방	10월 13일(토)	종일	군산 근대문화거리 - 히로시거육 - 영국사	이경향 가톨릭대 교수
3	강연	10월 18일(목) 10월 25일(목)	19:30	행동하는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한홍규 교수
	담방	10월 27일(토)	종일	안동 임청각 - 칠령교 - 경상북도독립기념관	이경향 가톨릭대 교수
후속 모임	담방	10월 31일(수)	10:00-13:00	남산 통감부터 - 조선총독부터 - 경성신사터	정순희 교수

■기간 : 2018년 8월 30일(목) ~ 10월 31일(수)
 총 3차(강연 7회, 담방 3회, 후속모임 1회)
 ■장소 : 3층 청소년힐링캠프
 ■대상 : 청소년 이상(각 회차별 40명)
 ■신청 : 홈페이지/전화/방문
 ■문의 : 02)357-8749
 - 각 회차별 신청 및 중복 신청 가능
 ※ 단, 담방만 단독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수강료 및 할부비 무료(해사비 개인부담)

- 상기 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속모임은 1~3회차 강연 수강생만 참여 가능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참여시 도서관 홍보를 위한 촬영 및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시행: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인문학강의



사유의 새로운 지평 열기, 서울시민대학

- 서울에는 철학하는 시민이 산다
- 한나 아렌트 : 김선욱 교수
- 스피노자, 미셸 푸코 : 허경 교수
- 프로이트 : 백상현 교수
- 사물의 철학 : 함돈균 문학평론가
- 일상의 철학 : 사회학자 노명우



정보리터러시와 공공도서관

-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보리터러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
- 정보리터러시를 위한 구산동도서관마을 동아리-컴생컴사,스마트폰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수시로 실시.
- 사서가 직접 진행하는 교육
- 도서관 이용자 및 대학생 재능기부를 통한 수시교육 실시

특별한 영화와 감독, G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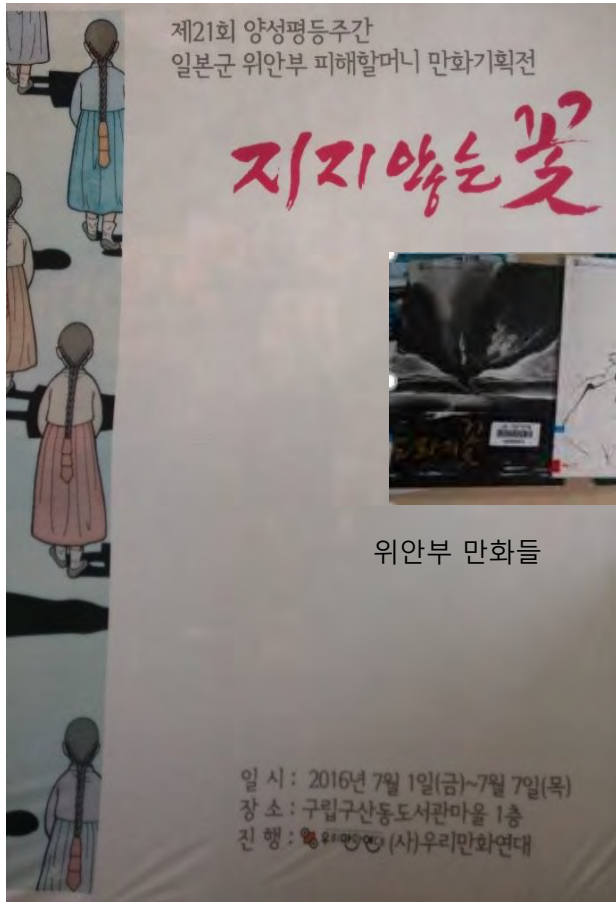
- 사회의 구석진 곳, 감춰진 문제 드러내는 독립영화 상영, 감독과 관객 만남 시간
- <자백>(최승호 PD)
- <공동정범>(김일란, 이혁상, 변영주 감독)
- <B급 며느리>(여주인공 김진영)
- <내일> 등
- 영화 상영 후 관객과 사서가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실시.
- 영화와 감독, 주연배우를 만나는 GV

30개가 넘는 동아리들, 도서관을 채우다

- 다양한 연령과 주제를 아우르는 동아리들, 세대공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소통의 장



은평구청 여성정책과, 우리만화연대와의 연계 전시



위안부 만화들



동네 지역작가(김성현)와 환경특별전



이삭 줍는 사람들 설명
-실제로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

핵 보유국 순 국기 전시.
원전사고를 너무 쉽게 잇는 것에
재차 미래를 생각해볼 기회

콩각지가 쓰여 바로 보지 못하는
-실제로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

2016 맹맹맹盲盲盲 환경특별전 전시·프로그램 안내

1. 환경특별전 '맹맹맹盲盲盲' 학생·시민 참여 프로그램
※1~5차는 일요일 3시~5시 공통 진행됩니다.



차수	날짜	주제	강사	장소	참가비	대상	인원
1	6/19(일)	햇핑크돌핀스가 들려주는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햇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	마을마당	3,000원	초·중·고·학원·중·외·학생	선착순 25명
2	6/26(일)	나만의 고래 책갈피	윤지영 작가		3,000원		
3	7/17(일)	생태맹 초록 콩각지	김성현 작가		(참가비 없음) 워크숍 결과물은 도서관에 전시함		
4	7/24(일)	페트병 물뿌리개	김성라 작가		3,000원		
5	8/7(일)	(특강) 후쿠시마의 교훈과 우리의 미래	그린피스 장다울 (선임캠페이너)	청소년 힐링캠프	참가비 없음	누구나	70명
6	8/31(수)	(파워그린콘서트)맹맹맹	그린디자이너 김성현 작가	마을마당	참가비 없음		30명

2. 실별 프로그램 진행



각자료실	월	프로그램
종합	6 8	나의 생태 감성지수는? 핵, 핵! 핵~(퀴즈)
어린이	6~8 7~8	몽당연필로 나무만들기 아나바다 실천운동
청소년	6~8	-모아읽는 책 : 이벤트 서가 -멸종위기 동물들에게 편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도서관에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환경보호활동 아이디어 모으기
만화	6 7 8	페골판지 그림에 환경 만화 그리기 우유팩 이용한 새장이용 만화이야기 만들기 우유팩을 이용한 만화 병풍 꾸미기

3. 환경실천 캠페인 도장찍기 - 환경특별전 기간 동안 각 자료실의 실천 과제를 실행하여 3개의 도장을 받은 이용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선물 소진시까지)

- 1.마을자료실 : 다 쓴 공책을 가져오면 도장 1개 / 텀블러 가져오면 도장 1개
- 2.만화자료실 : 우유팩을 잘 씻어서 말려오면 도장 1개 / 년도 지난 책상달력 가져오면 도장 1개
- 3.어린이자료실 : 몽당연필 가져오면 도장 1개



방사능 마크를 형상화한 가시 방식
편하지만은 아닌 방식 표현

도서관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감혀있는 고래 표현

환경을 위해 실천 가능한 것 들

[발표]

마을에서 시민으로 크는 어린이, 청소년

- 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1. 온 마을 배움터, 놀이터

1) 공간이 운동한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다. 공릉동 마을의 어린이, 청소년, 주민에게 사랑받는 보석 같은 존재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 이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청소년센터 또는 공쎸(공릉센터), 문쎸(문화센터), 청문(청소년문화센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센터의 이름이 이렇게 길게 작명되어진 이유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 때문이다.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는 공공도서관이고, 하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이 함께 공존하게 된 사연은 살짝 특별하다.

노원구청에서는 공릉동에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두 가지 시설에 대한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마도 두 가지 시설을 모두 짓고, 운영하기에는 건립비용과 운영비용 등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의 부지에 두 시설을 함께 지어 넣는 시설 모형을 생각했으리라... 짐작된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는 긴 이름도 두 가지 시설 건립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배정받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정부의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청소년 관련 행정 지원 조직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름을 새롭게 창조해낸 것이다. 하지만 이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센터를 쉽고, 친근감 있게 부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생겼다.

센터는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대지 1,018㎡, 건물 2,595㎡(약 800평) 규모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카페, 다목적실, 무용실, 청소년 놀이 공간 유스카페, 상담실, 음악실, 교육 프로그램실, 되살림 가게 등 조금 복잡하다 할 정도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도 청소년지도사, 사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상담사, 시설관리직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우리센터를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도, 도서관이라고도, 복지관이라고도, 상담실이라고도, 주민회관이라고도, 평생교육센터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한마디로 잡종, 좋은 말로 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는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이다. 외관은 3면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동네 골목에서 쉽게 보기 힘든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그런데 유리 건물이 가지는 최대약점이 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열효율이 매우 낮은 건물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센터는 환경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환경을 고민해야 하는 공간이니 말이다. 외관은 멋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쉽게 불러 모을 수 있지만 건물에 전혀 친환경적인 설계가 도입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장점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융합 되면서 시설활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이용도가 높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문화, 주민들의 참여가 있는 살아 숨 쉬고 있다. 또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만 가야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낮에는 주민 학습과 모임공간으로 활성화되고, 모임에 참여한 주민들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자원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청소년 활동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과 공공 이용시설인 도서관이 융합되면서 찾아낸 장점이다.

많은 자랑거리 중 하나는 접근성이다. 산위에 있거나, 마을 외곽에 지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 한 가운데 자리 잡았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친절과 환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기라는 강아지다. 설기는 우리 센터의 대표 마스코트다. 설기 이외에도 길고양이 나비, 물고기 어항, 4년 된 달팽이는 센터에 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대를 주고 있다. 친절과 환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좋은 추억을 가지게 하고, 애착의 기지가 되어준다. 1층은 어린이도서관과 꽃다방 그리고 든든한 보따리 나눔가게가 자리 잡고 있다. 어디를 들어가도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고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2층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이 있다. 댄스연습실과 동아리실, 간단한 워크숍, 강의, 마을회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다. 3층은 유스카페다. 테라스에는 청소년들의 힘으로 열리는 반짝매점이 있고, 당구장, 탁구장, 비디오게임, 노래방, DVD방, 만화방이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센터 전 층에 와이파이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청소년 이용이 많은 곳에는 추가설치를 얼마 전에 끝내서 와이파이 연결이 손쉬운 편이다. 크고 작은 모임방이 있는 4층을 지나 5층과 6층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그리고 작은 상담실이 있다. 도서는 전체 3만5천권 정도 있고, 방과후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130석 정도가 마련되어 있다. 주민 누구나에게 열려있지만 청소년들의 좌석을 미리 확보해서 청소년 이용 우선이 될 수 있게 한다. 지하에는 밴드 연습실도 있다. 센터 공간을 빌리는데 청소년이라면 아무 돈도 들지 않는다. 주민들의 경우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체 활동, 평생 학습 활동에는 무료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무상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열린 공간에 모인 청소년과 주민들은 다양한 활동에 주인 되어 갔다. 지난 8년간 스스로 서고, 더불어 사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마을의 문화와 공기가 각자 도생에서 연대상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정말 열린 공간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마을 단체인 꿈마을여행단은 공릉동의 문화역사, 산, 들, 강을 바탕으로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외부에서 견학 온 손님들과 마을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여행을 한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연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을여행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개관초기부터 함께 했던 도서관 일촌은 북카페 다락, 꽃다방, 마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등으로 퍼져나갔다. 든든한 이웃은 청소년과 마을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들은 되살림 매장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실천하며 노원구 되살림 협동조합이 잉태되도록 이끌었다. 센터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에 다양한 독서모임, 육아모임, 그림책모임, 마을의 바느질 모임, 바리스타, 놀이지도자 모임이 생성되고 있다. 또 지역에 모임은 있었지만 공간이 없어서 활성화되기에 힘들어 했던 어린이책읽기모임, 생협모임, 청년예술가 모임 등은 센터 공간을 빌려 활성화되기도 했다. 또 마을에서 서로 구분되고, 연결되기에 힘들었던 장애인복지관, 어르신센터, 북한이탈주민,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학교 교육복지 활동,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등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 속으로 들어와 활력을 찾고도 있다. 낯선 조직과 사람들의 만남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워졌고, 장애인복지관과 도서관자원활동가와의 만남, 학교 밖 청소년과 마을 동아리의 협업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이 일어나고도 있다. 또 초기 참여자들은 재활용 매장, 도시농업,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마을협동조합, 마을여행과 마을문화예술 활동의 당당한 리더들로 성장했다. 열린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이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학습공원”으로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이러한 청소년 공간이 노원에 하나 더 생겨났다.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이다. 행복발전소라는 이름으로 마을 구석구석에 더 많은 공간들이 생겨났다. 또 노원에는 공공도서관이 6개소가 있다. 아동복지관도 있다. 복지관도 마을마다 위치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문턱은 너 낮고, 관계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마을의 우물터였으면 좋겠다.

2) 담론을 높여야 한다.

우리센터 한쪽 벽에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이 큰 글씨로 적혀있다. 만화동아리 청소년들이 그려주었다. 이 슬로건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상징하는 표현이다.

마을에는 “교육력”이 있다고 믿는다. “교육력”은 마을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주민들 스스로 속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교육 소비자로 머물러 있으려 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파편화,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개별화된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에는 불안이 가득 담겨있다. 불안은 학교교육이 “내 아이의 입시에 초점이 맞춰주었으면”이라는 요구로 전달된다. 각자도생하려는 낮은 수준에서 교육의 담론이 형성된다. 학교는 그 수준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을 바꾸는 일은 마을 교육의 담론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학교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교육에 대한 아픔을 가진 마을의 파편화된 사람들을 찾아, 초청하고, 모이고, 둘러앉아 수다하고, 함께 해법을 궁리했다. 마을 교육의 담론의 수준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마을에서 교육의 시민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 날 수 있다면 좋겠다.

3) 수혜자, 대상자에서 생산자, 시민으로

우리는 모이면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주민 누구든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돕고 있다. 공간을 쉽게 잘 빌려주는 이유도, 여러 매력 있는 프로그램을 궁리해서 펼치는 이유도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는 의도다. 사람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생산자가 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꿈마을여행단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연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을여행을 만들어냈다. 마을 곳곳이 배움터가 되고, 마을 사람들은 교사가 된다. 마을의 바느질 모임, 바리스타 모임, 재활용 매장 활동가, 도시농업 활동가, 꽃집 아줌마는 청소년들에게 저 마다의 길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가르치고 있다.

모여서 생산자가 되는 경험은 약자인 청소년들에게도 소중하다. 우리센터에서 모여서 노는 청소년들은 마을 속에서 문화인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기획자가 되고 있다. 마을의 어둡한 한 곳에 벽화를 그린다거나, 텅 빈 땅에 식물을 기르거나, 문제를 직접 찾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주민들 중 실력을 갖춘 분들과 직접 생산품을 만들어 내고, 판매도 해보고 있다. 주민 예술가와 함께하는 단기 예술 학교에 참여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마을 축제와 어린이 잔치를 주도하기도 한다. 마을의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면서 공동체 마을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 각자도생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더불어 함께’라는 공동체의 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마을의 교육력을 키워내고, 주민과 청소년이 주인 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꾸리는 일을 한다. 최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려는데 행정의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이 모이고, 둘러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우물터가 필요하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을의 소중한 우물터가 되고 있다.

2. 놀이와 경험이 최고의 민주시민학습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은 모여서 떠들고 재미있게 논다. 마을의 우물터이자 놀이터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모여 둘러앉아서 수다를 하고, 와이파이를 빌려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마을 일을 하며 재미있게 노는 청소년들도 많다. 마을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꿈마을공동체의 중요한 일꾼이다.

공부에 지친 바쁜 일상이지만 청소년들은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여유와 틈을 찾는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마을일이 또 다른 쉼과 놀이가 되고,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2011년 공릉동에서 시작한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는 마을 속 경험을 중시하는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전국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노원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면서 활동은 조금씩 확장되었고, 현재는 노원구 내 6개 단체가 함께하는 프렌차이즈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한해에 60개 동아리에서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작은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하나가 되어서 활동 그룹마다 25만원씩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이 청소년사회참여 활동은 일부 학교로 파급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소수 그룹만이 참여한다.

1) 청소년 마을 프로젝트 “시작된 변화”

청소년 마을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열어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개인, 친구관계, 학교를 넘어서 마을공동체를 경험하고, 개인으로서 더 큰 공동체에 참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일 수 있으며, 책임감을 지닌 시민으로 민주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다.

시작된 변화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할 때는 처음 활동주제를 정할 때일 것이다. ‘우리가 과연 마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씨앗은 이번 해 마을과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작년의 나는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친구들이 변하다보면 마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마을의 직접적인 변화로 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까닭은 우

리 마을이 씨앗으로 인해 무언가 바뀔 거라는, 한 발짝 진보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 2014년 시작된 변화 보고서 p15 고등학교1학년 진주희

시작 된 변화는 2011년, 지역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미없는 봉사, 내 삶과 의미 없는 봉사, 시간 때우기 봉사로 흐른다는 비판도 자자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프로젝트 방식의 활동을 추구해보기로 했다. 활동의 공간은 마을과 자신의 학교,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4년 동안 참여한 청소년들은 마을청소, 재능 나눔,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시작된변화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가면서 좌충우돌, 재미있는 사건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다. 청소년들 사이에 이 활동에 매력을 느끼고 매년 참여하는 청소년도 생기고, 친구와 동생들에게 참여를 안내하기도 하면서 활동에 참여자를 모으는 일도 한결 쉬워졌다. 시작된 변화는 단순한 자원봉사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참여 청소년은 스스로 과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과 자신의 주변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또 스스로 선택한 과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지식 정보를 찾아 읽고,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커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스토리가 생기면서 자신 삶을 글로 쓰고, 말하는 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1년여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해 우정을 기르고, 역지사지의 이해와 소통, 갈등을 조율하고, 협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도 된다.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고도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장 기회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작된 변화’는 그 이름처럼 나에게 작지만 큰 변화들을 가져다주었다. 사실 시작된 변화 때문에 주말에 늦잠도 못자고 놀 시간도 사라져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고 후회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작된 변화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을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기 위해 내 주변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기 위해 나를 바꾸게 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살갑고 정답게 인사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밝고 따뜻한 마을을 보고 싶었다. 우리 마을을 그런 밝고 따뜻한 마을로 바꾸기 위해 시작된 변화를 했는데 내가 그런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에서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를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웃과 마주칠 때면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밝은 태도를 갖게 되었다. 5월쯤, 버스에서 중학교 때 친구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내가 달라진 것 같다고,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다고 했다. 내가 정말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 2013 시작된 변화 보고서, p137-138, 고등학교 2학년 김민정

가. 시작된 변화는 어떤 활동인가요?

시작된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학교, 그리고 이 나라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다.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야한다는 데에서 기존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는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혼자보다는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팀을 이루어 함께 계획을 세우고, 힘과 지혜를 모아 실천해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이자 청소년의 힘으로 세상과 마을을 조금씩 변화시켜나가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이다. 시작된 변화의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부 활동의 목표는 각각의 참여 활동팀에서 선정하게 되며, 다만 활동 청소년들은 시작된 변화 활동의 가치와 방향, 원칙들을 공유하고 있다.

<시작된 변화 방향과 활동의 원칙>

◎ 방향	
방향	세부내용
청소년 참여 중심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활동 중시
문제해결 능력신장에 관심	문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문제해결 능력 신장 도모
즐거운 협동교육을 지향	친구들과 과제를 해결해가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의 즐거움 중시
뿌리를 알아가는 활동	내 고장의 역사, 문화, 환경, 이웃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애정을 키워가는 활동

◎ 활동의 원칙
·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공익적 활동을 한다
· 청소년은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탐색 궁리 도전 한다
· 모든 진행은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청소년이 협업을 한다
· 스스로 만들어낸 과정과 결과를 글과 사진 그림 등으로 정리하고 대중 앞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나. 누가 참여하나요?

참가 자격은 노원구 관내 13세 이상 3명 이상의 청소년 모둠으로 하고 있다. 2011년 공릉동지역 청소년으로 한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노원구 관내 청소년으로 확대 되고 있다. 2015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중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서울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이 노원구 전체 학교의 협조와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릉동 지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다. 공릉동에서만 매년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참가 청소년 모듬은 모두 한 장의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서 안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을 묻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계획서에 의해 각 모듬은 자신들의 활동을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게 된다. 전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운영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모듬별로 2월, 또는 12월에도 활동하거나, 활동기간이 짧거나, 한 두달에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3월 워크숍, 11월 최종 발표회, 12월 홈커밍데이 등의 행사가 있다.

각 모듬의 활동 내용과 활동시간은 다 다르며 자신들만의 활동계획을 설계해서 운영한다. 활동시간은 주2회, 시험기간 제외 등의 방식으로 조절한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진행되기에 약간의 우발적 만남이나 진행 사항도 있을 수 있다. 활동은 주말(토, 일)을 활용하여 대부분 일어나고 있으나, 방과후나 아침 일찍 준비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참여 청소년들은 연중 최소 20여회 이상의 만남과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듬에는 대학생 지도자들이 중간 매개자로 참여한다. 대학생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상의하는 파트너다.

활동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글로 정리하게 된다. 또 대중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발표회를 통해서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라. 활동장소는 어디로 하나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마을 곳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실제 활동 장소는 청소년 센터이거나, 해당학교, 유기견보호소, 노원청소년수련과, 마을 축제 장소, 어린이 놀이터, 학교 운동장, 길거리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활동의 내용은 매년 다양하게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마을 환경개선, 재능기부, 마을탐방, 게릴라 가드닝, 먹거리 연구 등 새로운 이슈들을 찾아낸다.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도 자신들의 재능과 처한 상황, 한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낸다. 그중 몇몇 그룹은 몇 년 동안 유기견 보호를 위한 활동이나,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고, 소통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제로 선정하고, 매년 다른 방식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가기도 한다.

2) “시작된 변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가. 이런 활동을 개발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노원구립시설로 성공회대학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2001년, 2002년 성희대학교에서 주관한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을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주관했던 사회 참여발표대회는 참여의 내용이 정책제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였으나, 청소년의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으려면 마을에서의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유익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 시간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워크숍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결과가 지역사회에 공유될 수 있고, 입시나 취업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결과 도출까지 고민했다. 그리고 청소년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삶의 스토리와 추억을 만드는 과정에 관심을 두었으며,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둠을 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나. 청소년을 모집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처음 시작했던 2011년 초 청소년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이유는 단순한 자원봉사 보다 의미는 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지역 학교에 찾아가 설명회를 하고, 학부모 자원봉사단과 함께 홍보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부 청소년들의 참여를 얻게 되었다. 일부의 청소년들은 본 취지를 듣고 참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경우도 있었다.

시작된 변화 활동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40여명의 청소년을 모았다.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발급했다. 하지만 자원봉사 시간을 받기위해 모인 청소년들은 모두 흩어졌다. 시작된 변화 활동을 위해 남은 청소년들은 대여섯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 소수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모아오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첫해에 60명의 청소년이 모였고, 매년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작된 변화 첫해의 성취가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 활동만의 전통과 문화가 생겨났고, 이후의 참여자 모집은 순조로운 편이다.

다. 프로젝트의 단계별 운영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젝트는 전반부 청소년들의 활동주제 선정과 활동계획 수립에 집중한다. 활동을 돕기 위해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협동의 분위기,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시할 수 있는 무비판적 분위기, 의미 있는 일을 위한 헌신과 도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활동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도자, 대학생 매개자와 상의를 하게 되지만 지도자는 안내자이자 거드는 역할에 충실 할 뿐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몫이 된다. 이제 활동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중반부에 들어선 것이다.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하게 되지만 많은 난관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쉽사리 포기하고, 멈춰 서지 않도록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모둠별 대학생 매개자 또는 청소년지도자는 맞은 팀을 점검하고, 활동 진행과정을 상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진행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프로젝트는 과업이지만 관계의 문제에 관심을 크게 두고 진행한다. 갈등을 조율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깊은 관계맺음도 매

우 중요한 성공요인이 된다. 2011년에는 모둠별 지도자 없이 센터의 청소년 지도자 1인이 60명의 청소년을 담당 지도했으나, 2013년부터는 대학생 자원활동가 그룹을 결성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배분하고 있다. 이 중간 매개자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성장도 놀라울 정도이며, 만족감도 높다. 최종단계에 이르면, 청소년 스스로 모듬의 실천을 돌아보고,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의 최종정리는 활동계획을 근거로 한 결과 보고서 글쓰기와 판넬,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등으로 한다. 또한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말로 활동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단계는 청소년들 스스로 만들어 온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다.

라. 시작된 변화 활동을 돕는 사람들이 있나요?

시작된 변화 활동을 지역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들은 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구청 등의 실무자다. 노원청소년수련관은 노원구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변화를 함께 해나가는 또 하나의 주체다. 2016년부터는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확장되어, 노원구 관내 6개 단체가 협업하고 있다. 주로 홍보, 청소년 지도, 발표회 진행 등에서 함께하고 있다. 노원구청과 주변 학교의 교사 등은 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청소년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일례로 주변 학교 교육복지사, 진로부장 등의 이해가 있을 경우 시작된 변화 활동을 소개해주거나, 참가 청소년들을 응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중간에서 지원하는 청년 활동가 그룹 “청뜰”이라는 조직도 움직이고 있다.

활동을 성공시키는데 마을의 협조적 분위기와 학부모들의 동의는 중요한 요소다.

활동 초기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활동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이유는 자원봉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느끼는 경우였다. 하지만 결과의 도출 단계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크게 감동하곤 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본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자가 된다. 이유는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역동 때문인데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궁리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된 변화는 한번 참여한 청소년들이 5년 연속 본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님들도 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학업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마. 청소년이 마을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마을일을 처음 시작한 청소년들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부담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실패는 타격이 큰 반면, 마을일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실패의 충격은 청소년 스스로 감내할 정도이다. 삶에서 실패를 피할 수 없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이 마을 활동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한다. “학교에서는 무엇이든 하라고 하지만 성적이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패하면 학생부에 기록되거든요. 하지만 시작된 변화는 경험이 되는 거지 실패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실패를 기록하지도 않고요.” 마을 일에서의 실패는 경험이 되고 성장이 된다.

바. 시작된 변화로 정말 마을이 변하나요?

시작된 변화 활동은 지역사회의 일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벽화를 그린다거나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끌어내기도 한다.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가 풍성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도 시작된 변화를 주축으로 한 청소년 활동가들의 참여다. 한마디로 마을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생긴 것이다.

시작된 변화 활동이 공동체에서 더욱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문화가 청소년들을 환대하고, 청소년들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응원해주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공동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지역 단체, 주민들이 꿈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 선언과 약속, 주민 공동강좌, 마을 잔치 등의 협동적인 마을 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활동이 마을과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는 자산이 되고 있다.

3) 이렇게 마을에서 모여 논다.

가. “자전거가 사라졌다.” - 퓨어가가스

온라인 민원상담 [로그인]

목록번호	16019	어느날 집에 돌아와보니 자전거가 사라졌다.				
작성일자	구분	작성일	조회수	79	공개여부	공개
		2011-12-10 17:29:24				

저희는 공동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 자원봉사단 퓨어가가스이고 여중생 3명으로 (대할중2/공릉중1) 이루어져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주제를 정하던 중 노원구 공릉동의 자전거 관리 실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전거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문제점들 중 저희는 해결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 방안을 건의합니다.

(1)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각 구청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법적으로 제정한다. 자전거 등록 시에는 신분증(청소년은 학생증)과 자신의 자전거를 지참하고, 주민 센터에서는 자전거 소유주, 기종, 사진 등을 입력하고, 자전거에는 안장 앞쪽에 고유번호가 기록된 스티커를 지급한다. 등록제가 시행 시 자전거 분실 시 회수율이 높아지고 자전거 특성이 모두 입력되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정책 수립 때도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하여 환경 및 교통난 해소가 가능하다. 주민 센터에서는 자전거 등록 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을 필수로 하여 자전거 등록을 능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

(2) 자전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초등학교 1, 3,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한다. 자전거 교육에는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보호장구 착용, 야간장비, 횡단보도 이용 등)과 자전거 수선도 등을 교육하고, 노원구의 경우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을 중심으로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매년 7~8월을 자전거 이용의 달로 정하고, 자전거 이용관련 수칙과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한다.

(3) 자전거 도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자전거 도로는 폭 최소 1.3m(자전거 한 대가 여유 있게 지나가는 길이)로, 인도와 차도 사이, 차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도록 한다.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의 다른 교통수단의 통행 및 주차, 정차를 금지하고(과태료 10~15만원), 장애물(표지판, 가로수, 불법노점상,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4) 도심의 자전거 도로망 연결해야 합니다.
 - 연마리 코펜하겐 시의 자전거 도로를 모티브로 삼아, 서울의 거의 모든 곳이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 한강의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가미골처럼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폭은 자전거 2대가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인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도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 자전거 도로망은 통근 및 통학 등에 이용하도록 한다.
 노원구에 위치한 공릉동의 경우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중랑천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바로 중랑천의 자전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릉동에서 중화동으로 경유되는 자전거 도로의 폭이 좁은 것,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이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도로가 끊겨 있는 곳의 보완이 필요하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한 사진은 중앙천으로 설문조사활동을 하던 사진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답변

담당부서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담당일자	접수번호	201112101729241982
작성자	손기중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수습(2011.11.07)

귀하의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
 처리기한은 2011-12-15 18:00:00 까지이며,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 세 명은 자전거를 잃어버린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명은 같은 학교였고, 1명은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었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공통의 경험이 세친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친구들은 퓨어가가스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퓨어가가스라는 특이한 이름은 레이디가가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서 순수하게 마을일을 해나가겠다고 야심차게 정한 이름이다.

퓨어가가스는 자전거 타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1년간 노원구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했다. 우선 상주, 파주 등 국내 자전거 선진 도시의 사례를 탐색했다. 덴마크, 일본 등의 사례를 찾기도 했다. 주말에는 안내판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로 나갔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했다. 자신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제안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생겼다.

퓨어가가스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 몇 번이나 글을 다듬고, 다듬어 떨어지는 가슴으로 글을 올렸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자전거가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은 4가지의 주장을 담았다.

- ①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해야한다.
- ② 자전거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 ③ 자전거 도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④ 도심의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해야 한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읽어주었으면 했던 민원 글은 며칠 뒤 구청 담당자의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돌아왔다. 퓨어가가스의 제안으로 인한 것인지 시대 변화의 흐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노원구에는 이들이 제시했던 자전거 관련 정책이 하나, 둘 실현되고 있다.

나. 굴다리의 변신 - 베리타스

경춘선을 중심에 두고 형성된 마을에는 이쪽저쪽 사람들을 잇기 위해 굴다리가 생겨났다. 굴다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경춘선이 멈춰 서자 곧 흥물처럼 느껴졌다. 이 굴다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청소년들이 베리타스다. 베리타스는 여자고등학생 5명과 남자학생 1명으로 구성되었다. 한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겨우 얼굴만 알고 있거나 전혀 누가 누군지 관심 밖에 있었던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자원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우연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참여했다가 모이게 되었다.

워크숍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었지만 후속 활동을 권장했다. 후속 활동을 하겠다고 바로 친구들과 적극적인 모색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많은 수는 그냥 워크숍에 참여한 시간만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받고 헤어졌다. 그 중 이도 저도 아닌 청소년들이 있었다. 후속으로 마을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주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 주제를 잡지 못한 청소년 6명이 한조를 이뤘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결정을 짓지 못한 청소년들은 1달이 넘도록 합의된 주제를 찾는데 실패했다.

한 학생이 동네 굴다리에 벽화를 그려보자는 제안을 했다. 모두들 어두컴컴하고, 오물까지도 가끔 버려져 있는 굴다리 길이 불편하고, 무섭기는 했지만 벽화를 그려서 해결해 보자는 생각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담당 선생님과 한두번 모임을 더 가지고서 벽화를 그리자는데 합의를 이뤘다. 일단 페인트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사업비로 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벽화를 그릴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구청과 철도청에 편지를 써서 사전에 허락을 맡으려하지만 철길과 주변벽면의 관리 주체가 모두 달라서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베리타스는 벽화를 그려본 경험도 전혀 없고, 심지어 그림에 모두 자신이 없는 상태였다. 벽화 경험이 있는 누군가의 자문과 참여를 필요로 했다. 수소문 해보니 서울여자대학교에 미술학과도 있고, 벽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미술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리타스는 대학생 언니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다. 대학생들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행이었지만 굴다리 현장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벽화를 그려야 하는 공간이 굴다리다 보니 입구 양쪽면과 천장, 반대쪽 입구 등 상당한 규모였다. 대학생들이 생각했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작업이었다. 벽도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벽화를 그리기에는 좋지 않고,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다. 대학생들은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베리타스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이끌어 줄 것을 설득했다. 좀 더 사람들을 모아 보겠다는 약속도 한다. 우선 한 동네에 있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대학에 재학 중이 청년들을 섭외하는데 성공했다. 또 명실상부한 마을 벽화가 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주민을 100명 모아서 “함께 그리는 그림길”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주민 100명을 모으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홍보지를 만들어 붙이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갔다. 주민 10명이 모이자 굴다리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이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우리동네에서 자원활동을 목적으로 모이신 “튼튼한 이웃” 이었다.

설명회를 위해서 공공미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굴다리 사진을 촬영해서 벽화 프로젝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외국과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기도 했다.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EBS 지식채널e에 나온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짧은 영상을 함께 감상했다. 영상에서 미국 뉴욕주 지하철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낙서를 지우고, 간단한 공공 규칙을 지키게 하면서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영상이 마

치자 베리타스는 굴다리가 어찌면 공릉동에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음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다. 설명회는 모인 사람들에게 진동을 주었다. 10명의 사람들이 마을에서 함께 벽화를 그리자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서 100명은 순식간에 모이게 되었다.

100명이라는 사람을 모으려고 했지만 막상 많은 사람이 벽화 그리기 활동에 접수 하자 베리타스는 당황했다. 우선 한꺼번에 100명이 다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4 개 조로 나누었다. 페인트는 준비하겠지만 붓과 장갑, 간식과 물은 베리타스가 준비 할 수 없으니, 개인이 챙겨서 올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탁했다. 굴다리는 차량 이 수시로 다니는 길이니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 1주일 전부터는 현수막을 붙여서 벽화 그리기 위해서 차량 통행이 어렵다고 알렸고, 우회 도로를 안내했다. 당일에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 도구와 차량 통제용 도구를 빌려서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통제 했다.

시작된 변화 활동계획서

팀명	Veritas (전)	신원 날짜	2011년 1월 1일
함께하는이 (대표자 포함/4명)	이름	학교(소속)	학년 및 연령
	이메일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활동 주제	공릉동에서 벽화 만들기		
문제의 발견	- 벽화 그리기 재료 준비하기 -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문제 분석	- 벽화 그리기 재료 준비하기 -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활동계획	1. 벽화 그리기 재료 준비하기 2.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3.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4.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5.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6.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7.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8.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활동시기	2011년 1월 1일		
지역사회 자원	공릉동에서 벽화 만들기		
활동계획	공릉동에서 벽화 만들기		

시작된 변화 활동계획서

팀명	Pine Grade (대)	신원 날짜	2011년 1월 1일
함께하는이 (대표자 포함/4명)	이름	학교(소속)	학년 및 연령
	이메일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활동 주제	공릉동에서 벽화 만들기		
문제의 발견	- 벽화 그리기 재료 준비하기 -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문제 분석	- 벽화 그리기 재료 준비하기 -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활동계획	1. 벽화 그리기 재료 준비하기 2.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3.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4.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5.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6.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7.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8.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하기		
활동시기	2011년 1월 1일		
지역사회 자원	공릉동에서 벽화 만들기		
활동계획	공릉동에서 벽화 만들기		

하루 전에는 100명의 자원활동가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벽에 붙은 오 랜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했다. 또 밑그림을 그려서 프로젝트 당일 날 참여한 사람들이 큰 혼란 없이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했다. 벽화 그리기 당일은 베리타스 6명 모두 새벽같이 나와서 페인트가 바닥에 떨어져서 지지분해지지 않도록 버려진 현수 막과 박스를 주워서 길바닥에 깔아 놓는 사전작업을 했다. 아침 8시가 되자 자원활 동을 신청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왔고, 간식을 가져와 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주변에서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던 커피숍에서 도 의미 있는 일에 힘을 못 보테지만 모닝커피와 코코아 간식을 나눠주신다. 주민 자치회에서도 나와서 응원하시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고, 수고하는 사람들 나중에 회식이라도 하라고 봉투에 돈을 넣어 주시고 가시는 사람들도 있다. 벽화는 저녁쯤 마무리되고 해가 지기 전에 벽에 함께 그린 사람들의 이름을 써넣었다.

◇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에서 꿈소라는 팀에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안유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해에는 LED가로등설치, 두 번째 해에는 이면지 재사용을 주제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된 변화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2011년 겨울. 제가 두산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복싱을 배우러 다녔었는데 가는 길에 항상 그 문제의 요 굴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라 잠시라도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굴다리가 가까워오면 전력질주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굴다리에 벽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무서움의 집합체였던 바로 그 굴다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곳이 되어있었고, 저는 여유롭게 그곳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완전 편리했죠. 몇 달 후, 친구의 소개로 시작된 변화를 알게 되었는데 그 굴다리의 변화가 시작된 변화 활동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매우 감동을 먹었고, 나도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2년간 시작된 변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변화된 점 중 하나는 바로 봉사활동에 관한 인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떻게 자원봉사시간을 채우시나요? 안채우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같이 추운날 지하철에서 덜덜 떠든지, 학교에서 청소하면 주는 봉사시간 몇시간 간신히 받아서 대충 채우지 않았나요? 저에게도 봉사란 곧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시작된 변화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노원구에서도 진행되는 '몰래산타'라는 활동도 참여해 보기도 하면서 시작된 변화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둘째는 시작된 변화를 통해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활동의 특성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직접 다 해결을 해야 하나까요!! 한글파일 다루기나 ppt 만드는건 기본이고, 포스터 만들기, 캠페인, 법전 뒤지기, 설문지 만들기, 민원 넣기 등 진짜 오만가지 별의별 경험을 다해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장사까지 해봤어요. 직접 모든 것을 다 해야하다보니까 그냥 활동하는 일분일분 매순간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매우 스펙터클하죠. 그러다보니까 제가 쯤 이상한 걸지도 모르는데 이런 관문을 하나 하나 넘을 때마다 뭔가 묘한 기대감이 있어요! 다음엔 어떤 스펙터클한 활동을 하게 될까, 그 과정에서 어떤 위기가 터질까...? 음 이건 솔직히 기대 안되고, 음 하여튼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은 시작된 변화를 하면서 가지는 커다란 즐거움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아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 아예 없어서,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그걸 왜하냐는'아이도 태반이에요. 저도 이전에는 그런 청소년들 중 하나였는데, 그전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생각만하다 항상 그만뒀었어요. 2년 동안 활동을 해도 하고나면 별로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학교에서도 생각한 내용(프로젝트, 아이디어) 등은 진짜로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저한테 감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상 1년 활동이 끝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한 활동들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허탈할지도 몰라요.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면지 재사용이라는 거창한 제목아래 한 게 모금함 설치랑 이면지노트 만든거랑 그거 판 거, 딱 이 세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년 동안 우리의 생각을 진짜 실현시켰다는 점, 이 이름대로 변화를 '시작'시켰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 중에서조차도 이렇게 생각한 걸 직접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안유민(참여청소년)

다. 안녕하세요 - 사과씨

사람으로 꼭 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던 한 청소년은 어떤 생각에 빠진다. “모두 같은 층에서 내리는데 왜 우리는 인사조차 서툰 것일까?” 이 작은 생각은 6명의 사과씨 청소년이 2년간 인사 프로젝트를 하게 만들었다. 모듬명 ‘사과씨’는 “사과 속의 씨앗은 몇 개인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몇 개인지 알 수 없다.”는 깊고, 예쁜 뜻의 이름이다.

“사과씨”는 개인주의가 꼭 나쁜 것 만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도시의 삶은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화랑대역에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앞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인사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마주치는 주민들과 친구들도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작은 안내판 몇 개를 만들어 들어 나갔지만 활동의 취지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9번 정도의 마을 캠페인으로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고, 야쿠르트를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있었다.

인사 프로젝트의 작은 성공은 다음번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우리의 이웃들과 먼 곳의 이웃을 한번 도와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다. 집마다 쓰다가 이제는 안 쓰는 안경을 모아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보내는 활동을 계획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해외구호 단체가 있었기에 사과씨는 공릉동에서 모아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끔 하는데는 정성이 필요하다. 안경을 모을 수 있는 종이 박스함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했다.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안내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 붙였다. 생각보다 청소년들과 주민의 호응이 높았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안경이 모아졌다.

이번 활동은 나에게 있어서도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평소 이웃들과 인사는커녕 눈만 마주치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이번에 사과씨 활동을 하면서 성격도 더 활발해진 것 같고, 이웃들과도 많이 친해진 것 같다.

- 진유나

라. 하지마는 하지마

마을과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은 다양하다. 청소년센터는 이용시설이니 특별한 기획 없이도 도서관, 당구장, 비디오게임기, 와이파이 등을 이용해서 모여서 논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제시하고 모여서 노는 경우도 많다.

유스카페 운영진인 라온제나는 어느 날 당구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대회의 규모와 규칙을 정하고, 신청을 받고, 팀을 나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린나래는 라면 끓이기 대회를 개최하고, 파자마파티를 연다.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대를 조사하고, 장소, 준비물,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 정하기, 역할 나누기, 홍보지 만들기와 학급에 홍보하기 등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 준비가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모여서 놀면 신이난다.

청소년문화기획 동아리 역발상은 청소년 클럽을 운영한다. 청소년만 참석가능하다. 단 청소년센터의 일부 선생님들은 참석을 허락한다. 부모님들은 걱정이 한 가득이다. 벌써 아이들이 어른들이나 가는 클럽에 간다고, 호되게 혼내기도 하신다. 호기심에 찬 부모님들은 기웃 기웃 대기도 한다. 청소년 디제이가 나오고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반짝 반짝 빛나는 조명도 있다. 디제이는 미리 써온 사회 노트를 걸눈질하며 진행하고, 노래를 하는 밴드 동아리, 댄스 동아리의 초청 공연이 이어진다. 클럽에 초대되어 온 청소년들은 원하는 음료와 과자를 나누어 마시고 먹는다. 어둠속에서 현란한 싸이키 조명과 요란한 음악에 몸을 맡기고 이해 못할 춤을 춘다. 끝나면 함께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는 특색한 활동들도 많지만, 당구대회, 라면 끓이기 대회, 파자마 파티, 청소년 클럽 운영, 친구들과 떠나는 우정여행 등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깜찍한 프로그램이 자주 열린다. 청소년들이 뜻 밖에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함께 하자고 제안 할 때 조금씩 당황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속으로 다짐하며 이렇게 외친다. “하지마는 하지마.”

마. 제주도 우정 여행을 가련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무기력한 남학생들도 마을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없을까? 아직도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이다. 이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프로젝트가 “누구도 하지 못한 프로젝트”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4개의 테마 게임식으로 구성된 도전 활동이다. 12주 이내의 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4개의 테마는 이렇다. 첫째는 프로메테우스(팀) - 인간에게 유익한 발견, 발명, 창조를 해내야 한다. 둘째는 존고다드(개인) - 개인적으로 도전코자 하는 분야(공부, 음악, 댄스, 운동, 생활습관 등)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중에 어떤 성취를 만들어 내야한다. 셋째는 살림(팀) - 사람의 삶과 관련된 요리, 여행, 목공, 바느질 등 기초적인 것은 팀으로 수행한다. 넷째는 칼라풀(팀) - 다양한 사람을 색을 찾아보자라는 인터뷰게임이다. 인터뷰의 방식과 내용은 팀에서 결정한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림과 글로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다. 모든 테마는 “모든 인생은 소중한다.”라는 공통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 같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월 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1인에게 3개월 동안 총6만원이 지급된다. 또 활동의 결과를 최종 공유회에서 대중 앞에서 발표하면 2만원의 발표비도 지급한다.

조금 복잡한 형식이지만 중학교 2학년 남자 중학생 8명이 함께 참여했다. 1인에게 지급되는 6만원의 활동비를 모아서 2개월 동안 여행 계획을 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1개월 동안 활동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보니 지원된 경비로는 왕복 비행기표 값도 모자랐다. 여행 경비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된 경비로 장사 프로젝트를 먼저 하기로 했다. 마땅한 장사를 찾던 중 떡볶이 재료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냈다. 엄마에게 떡볶이를 간단한 재료로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떡볶이 판매를 홍보하고 장사하기로 한날 생각보다 장사는 잘 되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불앞에서 시달렸지만 수익은 3만원에 그쳐서 제주도 여행을 고집할 수가 없었다. 계획은 수정되고, 바다가 보이는 인천 여행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인천 지역의 맛 집을 검색하고, 여행을 꼼꼼히 계획해서 알차게 다녀왔다. 최종 활동 공유회에서는 즉석 떡볶이를 만들어 공유회에 참석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발표자들은 신이 나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들의 좌충우돌 스토리는 공유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바. 유기견을 보호하라 - 씨앗

“동물에게 사랑을, 키우는데 책임감을”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모듬이 있다. 중학교 2학년 청소년 5명으로 구성된 “씨앗”이다. 동물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모인 청소년들은 아니었다. 다만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곳을 찾던 친구들이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를 소개받고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 정한 주제는 보육원의 외로운 어린이들과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활동이었다.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동네 주변의 병원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의 취지를 설명했을 때 봉사활동을 허락해주지 않았다. 미성년자이고, 환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도움보다 병원과 환자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보육원을 알아보았지만 씨앗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보육원 봉사도 허락되지 않았다.

씨앗의 계획은 계속해서 어그러졌다. 무슨 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던 중 마을의 길고양이에게 관심을 가진 씨앗은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계획한다. 다행히 씨앗 모듬 친구들이 모두 동물을 좋아하고, 3명이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씨앗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지역주민을 찾아 나섰다.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살피기 위함이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를 찾아내고, 답십리에 있는 CARE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한다. 또 포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봉사를 한다. 유기견에 대한 봉사를 다니면서 현실을 조금씩 더 알아낼수록 유기견 문제에 대한 아픔이 커지고 활동의 동기는 더 강해졌다. “동물에게 사랑을, 키우는데 책임감을”이라는 슬로건은 이때 만들어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과 청소년에게 홍보를 시작한다. UCC를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하기도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손수 만든 책갈피를 나누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활동과정에서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생기기도 한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지면서 씨앗은 우리동네 유기동물이 있다면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공리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에 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만나절 동안 일시 보호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비상 회의를 소집한다. 그런데 만나절만에 비상대책 회의는 해산되어야 했다. 보호를 하겠다고 했던 개는 주인이 있는 개였고, 잠깐 목줄을 풀어 준 것뿐이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중학교 3학년이 된 씨앗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계획한다. 유기견 관련한 법률조사에 나서고, 마을 축제에서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캠페인을 재미있는 체험 방식으로 구성해서 어린이,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또 길거리 라디오라는 새로운 형태의 캠페인으로 주말 거리 행사를 진행 한다. 거리에서 음악을 틀고, 음료를 나누고, 손수만든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모금까지 했다. 모금된 돈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 퇴계로 센터에 전달한다.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엮어서 리플릿을 구성하게 된다. 리플릿을 제목은 ‘동행 : 유기동물과 행복하기’로 정했다. 내용은 유기동물을 만났을 때 대처방안, 유기동물의 현 실태, 동물등록제에 대한 안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방법, 씨앗에 대한 소개 등을 담았다. 리플릿 제작을 위해 내용을 구성하고 포토샵을 배우고, 인쇄종이를 선택하고, 마지막 제단을 해서 200부를 만들었다. 완성된 리플릿은 청소년센터와 공릉동에 있는 동물병원, 학교, 주변 가게 등으로 배포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흩어진 씨앗은 이 전처럼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유기동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끔씩 모여서 수다 떨고, 활동을 공리한다. 마을에서 작지만 중요한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본 경험이 생긴 친구들의 우정은 끈끈해진다.

사. 씨앗폭탄을 던진다. - 꿈틀꿈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마을 활동 중 많은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활동이다. 에너지 절약, 리폼과 리사이클링, 캠페인 등으로 펼쳐진다. 그 중 꿈틀꿈틀은 공동의 버려진 땅에 관심을 가졌다.

건물과 건물사이 버려지고, 전혀 관리되지 않는 땅이 마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꿈틀꿈틀은 황폐한 그 땅을 식물로 마을을 변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페타이어를 주워서 색칠을 하고, 스티로폼 박스 등의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화분을 지저분한 장소에 두거나, 버려진 곳에 꽃씨를 뿌리는 일들을 진행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옥상과 주변 남는 땅에는 허브 식물을 길러서 수확했다. 센터와 연결된 자원활동가로부터 천연비누와 티백 허브차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로즈마리차와 천연비누를 만들어 마을에서 판매 했다. 33,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수익의 일부는 마을 탐방을 하면서 발견한 빈 땅에 게릴라 가드닝¹⁾을 할 율마와 로즈마리 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많았던 땅을 화단으로 가꾼다고 하자 치킨집과 부동산 아저씨가 도와주시고, 지나가던 주민들까지 도와주셨다. 생각했던 것 보다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었다. 2차 게릴라 가드닝은 씨앗 폭탄으로 정했다. 종합 토양토, 분갈이흙, 물을 1:1:1 비율로 섞었다. 만들어진 씨앗 폭탄은 꿈틀꿈틀 멤버 4명 외에 각자 친구 1명씩을 더 초대해서 8명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던졌다.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자신감을 얻은 꿈틀꿈틀은 3차 게릴라 가드닝을 계획했다. 포스터를 만들어 마을에 붙이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8살 어린이부터 대학생 언니까지 신청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모였고 꿈틀꿈틀에 대한 소개와 게릴라 가드닝에 대한 안내를 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과 씨앗 폭탄 만드는 법도 알려주었다. 모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4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씨앗폭탄을 만들고 신나게 전투를 치루고, 깔끔하게 마무리 했다. 함께 폭탄을 던지러 왔던 두 명의 형제는 게릴라 가드닝 오기 직전에 싸워서 퉁퉁 부어 있었는데 신나는 폭탄 투척 후에는 서로를 챙겨주며 친해져 있었다. 게릴라 가드닝으로 여러 사람이 만났고, 작은 축제가 되었다.

아. 우리동네를 알려드립니다. - 공릉여지도제작단, 누네티네

우리동네를 찾아다니고, 지도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노는 청소년들도 있다. 공릉여지도제작단은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문화유산, 걷고 싶은 곳, 청소년들이 찾아

1) 게릴라 가드닝이란 버려진 땅에 비밀스럽게 씨를 뿌리고 채소나 꽃을 가꿔 아름답게 만드는 활동이다. 게릴라 가드너들은 총대신 꽃을 가지고 싸운다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2004년 영국의 리차드 레이놀즈에 의해 확산되었다. 레이놀즈는 “게릴라 가드닝’은 비밀스럽게 땅을 가꾸는 일종의 놀이이며, 도시에 대한 저항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는 맛 집 등을 조사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조사하고, 기초 자료를 만든 사람은 15세에서 18세 청소년 다섯 명이였다. 취합된 자료로 지도를 만드는 일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 그룹이 도움을 주었다.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우리 동네 청결 상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꿈 마을 기지단에 들어서서 우리 동네에 대해 꼼꼼히 둘러보니 우리 동네의 청결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네에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아 길을 걸을 때마다 악취는 물론, 눈에 보기도 좋지 않았다. 지금은 겨울이라 냄새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찡그리게 된다. 더 심각한건 쓰레기를 불법 투기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경고 문구를 훼손하는 것이다. 경고문구가 훼손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 인줄 알고 계속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우리 동네가 깨끗해질까?
최근 흥대에 게릴라 가드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게릴라 가드닝이란 허가 없는 땅에 꽃이나 식물을 심어 쓰레기 불법 투기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곳에 식물과 꽃을 심는다면 우리의 주변은 좀 더 깨끗해지고 악취보다는 향기가 나는 동네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쓰레기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대화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모두가 쳐다보지 않는 곳이지만 게릴라 가드닝 같은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횡수가 줄어들면 분명 모두가 관심 가져줄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다.

공릉여지도 만들기 위한 탐방단의 절대원칙은 무조건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또 탐방장소를 천천히 둘러본 다음 체험과 인터뷰를 통해 그곳의 정도를 알아내고 꼭 글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탐방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시시하고 재미없는 변두리 공릉동이라는 생각을 떨치고, 우리 마을 공릉동에 대한 특별한 재미와 애정을 갖게 되었다.

“항상 친구들과 놀 일이 생기면 먼 시내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정작 우리 동네에서는 잘 안 놀아서 다른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공릉여지도 만들기 시작하고, 동네 이곳저곳을 탐방하면서 우리동네도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동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혼자라도 여기저기 다녀볼 계획이다.” 홍다현(17세)

이렇게 마을을 잘 알게 된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마을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가끔 운영되기도 한다. 또 누네티네라는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들은 우리동네에서 돈 안들이고 가족과 친구가 나들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찾아서 공유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마을을 걸으며 지도를 그린다



5월부터 시작된 공릉여지도, 정말 유연하게 시작했다. 공릉동에 대한 재밌는 어가를 계획하기 위해 시작한 의지도 흥미로웠다. 여차저차 공릉여지도팀은 5명이 되어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공릉동을 알아보았다. 여기저기 공릉동에 숨어있는 맛집과 조선의 왕들이 잠들어 있는 태강릉과 깨끗하고 쾌적한 중랑천, 건다보면 감상에 젖는 절길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인심이 느껴지는 도깨비시장을 탐방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차근차근 쌓이는 공릉동에 대한 정보 덕에 보람도 쌓여갔다. 한 살 어린 동생 두 명과 3살 차이는 동생 한 명을 동갑 친구와 함께 이끌고 해야 하는 프로젝트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만큼 시간도 안 맞아서 진행하기가 힘들었지만 발 벗고 나서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미안함도 컸다. 그래도 주말에 만나서 여기저기 탐방하며 더욱 친해졌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 그리고 맛집을 탐방하며 음식들도 맛있게 먹고 인터뷰도 하면서 재밌는 추억이 된 것 같다. 가게주인 분들은 우리들의 방문을 환영해주시고 인터뷰도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하지만 발이 아파서 걷기 힘들고 어떤 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 그리고 너무 더워서 귀찮았던 날도 물론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발로 뛰어 직접 참여한 이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란 생각에 힘을 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집에서 반동가리며 보냈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보람이 되었던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서 뿌듯했다. 탐방하면서 모았던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질문했었나? 라고 생각하는 인터뷰 내용들도 있었고 그때 찍었던 몇몇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일도 회상했다. 공릉동은 나에게 보람 그 자체였던 것 같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생각 없이 지나가는 길을 이고 단지 배고파서 가는 음식점을 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내가 가졌던 관심들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지만 특별한 노력이 되고 그 노력은 다 부딪힌 보람이 된 듯 싶다. 하나하나 다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고 공릉여지도에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다. 이제 정리하는 마무리 시간이 되어서 더 같고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있었다. 이렇게 공릉여지도는 내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것 같다. 공릉여지도 탐방단원 김다슬 (18)

*공릉여지도는 청소년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로 2013년 1년간 5명의 청소년이 마을 곳곳을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마을을 탐방하고, 인터뷰하면서 만든 마을 지도입니다. 책으로 만들어진 공릉여지도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오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낸 장소는 모두 세 곳이다. 첫째는 중랑천 장미공원, 삼육대학교 제명호, 공릉 근린공원이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곳이지만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대중교통이 불편해 공릉동 내에서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찾은 이용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누네티네 모듬은 세 곳의 특징적인 매력을 담은 사진과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의 이름은 “모두의 공릉”이라고 정했다. 이 포스터는 아파트단지과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부착했다.

또 우리 마을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축제를 기록하기도 하고, 마을의 공간, 자랑거리를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다닌다. 촬영된 사진은 페이스북 공릉동 좋아요를 통해서 공유한다.

자. 5살, 6살만 모여라 - 교감

5살~6살 아이들만 모여라 “창의적 미술 놀이”를 함께 해보자.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한 여자 청소년에게는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 어린 남동생을 혼자서 돌봐야 하는 시간이 늘면서 어린 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도 많아졌다. 많은 유아들이 스마트 폰, 텔레비전과 게임, 미디어에 빠져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다. 이 친구는 앞으로 어린 유아들을 돕고, 교육하는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고도 싶었다. 이 청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3년간을 친구들과 함께 마을에서 어린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처음 이 친구의 생각에 동의해준 친구는 2명이었다. 첫째 3명의 청소년들이 교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유아들과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유아와 엄마들 모두 만족하면서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둘째 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기존 3명 친구들 모두가 마을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뜻은 깊지만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 고민한다. 결국 한명은 포기하고, 또 한명의 친구 계속함께 했다. 둘이 함께 교감을 이끌어간다. 둘이서 여러 어린이를 지도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함께 이끌어갈 친구들을 몇 명 더 모아보기로 했다. 홍보지를 제작해서 함께 할 구성원들을 찾았고 6명이 신청을 했다. 유아들의 미디어 중독 문제와 사회성을 키워내는 활동에 공감하는 친구들인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거쳤다. 면접에는 4명이 왔고, 그 중에 마음이 통하는 두 명의 동생들과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9번의 모임을 계획했다. 유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간단한 주사위놀이, 물감물총놀이, 부채 만들기, 고래 뱃속 만들기, 과자집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었다. 제목은 언니들과 함께 하는 “창의적 미술놀이”라고 했다. 홍보는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을 겨냥했다. 5살, 6살까지의 어린이 7명이 쉽게 모집되었다.

나는 공릉동에서 사는 주민이 아니라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왔던 적이 없던 학생이었다. 그런데 친구 하연이의 제안으로 오게 되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난 이 활동이 그 저 아이들과 놀이를 하고 봉사시간을 받는 일인 줄 알았기에 부담 없이 면접을 보았다. 그리고 교감 멤버인 신원언니와 지수언니는 첫인상부터 착하고 똑똑해보였다. 활동을 하더라도 편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 최윤희

차. 문화예술로 놀자 - 청소년 극단 “작은별”, “119”

청소년들은 큰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공간이 마련되면 쉽게 모이고, 잘 논다. 청소년이 모이는 주요 이슈는 문화예술 활동이다. 밴드와 댄스는 가장 인기 있는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다. 주말이 되면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바빠진다. 댄스, 밴드, 만화그리기 등 각종 동아리 활동으로 센터의 전체 공간이 돌아가고, 청소년사서,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회의가 집중 운영된다. 또 청소년들의 마을 활동 “시작된 변화”도 주말이 가장 바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동아리들도 있지만 대부분 동아리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동아리 활동은 마을 축제나 학교 축제, 발표회 등을 준비하면서 더 활성화 된다. 하

지만 특별한 공연기회를 얻지 못해도 꾸준히 연습하며, 5년간을 이어온 동아리도 있다. 주말에 연습하고 1년에 1~2회 자신들의 공연을 올리는 청소년 극단 “작은별”이다. 한때 “작은별” 이외에도 뮤지컬 동아리, 극단 119 등 연극과 관련된 공연예술 활동은 꽤 많이 활성화 되었다. 119는 대본을 직접 쓰고, 청소년이 직접 연출한 연극을 가지고 청소년연극제에 가서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쌓은 청소년 중에는 대학에 진학해 연극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주요 멤버였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은 단체들은 해체되었고, 지금은 연극관련 동아리로는 “작은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작은별”은 매주 토요일 오후를 모임시간으로 한다. 담당 지도자가 있지만 단원을 모집하는 홍보지를 만들고, 붙이고, 대본을 정하고,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등 대부분 동아리 관련한 일은 청소년들의 몫이다. 지도자는 조언자의 역할이다.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목표했을 때 전문지도자를 연결해서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작은별”에 위기가 왔다. 주요 구성원들이 이사를 가거나, 고3이 되었고, 어떤 회원은 밴드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활동이 뜸해졌다. 신규 회원을 모집하려고 포스터를 붙이고 청소년 연극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신규 회원 모집에 실패했다.

문화예술 활동은 꼭 성공해야만 하는 학업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질 좋은 공연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어그리지고, 실패해도 그 자체가 소중한 경험과 추억으로 청소년에게 쌓인다.

카. 마을에서 모여 놀며 생산자가 된 청소년들

간식 제공
 시행 방법 - 원하는 과목의 생산자에게 부탁하여 개별 생산을
 연령 제한 - 6.1 (월)
 수강료 - 무료

파워 레인저

과목: 파워 레인저 (주 1회)
 전학년 대상의 취미/재미
 학습 프로그램 (초·중·고)
 인문·과학·체육
 파워 레인저 (주 1회) (초·중·고)
 전문 동영상을 제작, 교육
 파워 레인저 (주 1회) (초·중·고) (주 1회)
 문화·과학·인문·체육·예술
 <생각-문화체험 30분 (1학년)>
 나눔 (주 1회)
 문화·과학·인문·체육·예술

생각-문화: 장소
 마포: 화요일 오후 4시~5시 (1명 생)
 장소: 화요일, 화요일
 시간: 6.2 화요일
 후원: 7.22

생각 (조수)
 마음 (복잡)
 과학 (복잡)
 생각 (김민)

공동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동을 우리는 꿈마을이라고 부른다. 꿈마을에서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논다. 신기하게도 청소년은 모이면 모두 생산자가 된다. 문화 기획자, 놀이연구가, 교육자, 공예가, 음악가, 미술가, 배우, 연출가, 만화가, 상담가, 환경운동가, 혁신가가 된다.

문화 활동이던 마을 활동이던, 동아리활동이던, 재능 기부의 방식이던, 그냥 수다하고 놀던 모여서 놀 수 있으면 된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데 진로교육, 체험 프로그램, 학습 활동이 더 필요할까? 청소년들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시간적 여백과 모일 수 있는 잘 준비된 공간이 필요하다.

3. 민주주의를 배우는 마을학교

우연히 어떤 분이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을 빗대어 '초이성적 바보'라는 별칭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씁쓸했지만, 그 말 참 맞는 것 같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전의 세대보다 어려운 수학문제도 잘 풀고, 악기도 잘 다루고, 외국어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간단한 문제 해결에 두려움도 많고, 제 앞가림은 힘든 세대인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나 소수지만 마을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려는 작은 씨앗들이 이미 내려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청소년들 속에도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매년 여름방학이면 청소년들과 "세상과 마을을 바꾸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5일간의 워크숍과 캠프를 진행했다. 세상과 마을을 바꾼다고 했지만 5일 동안 할 수 있는 배움과 상상, 실천은 미미하기만 하다. 하지만 작은 상상과 시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마을 속 무모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서로서로 연결하는 상당한 재미를 맛보고 있다. 혼자서는 무기력해보이기만 했던 사람들은 혼자자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생기고, 자신 삶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상상하고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경험에서 배운다."라는 진부한 문구에 분명 의미가 있다.(알렌스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교육학자 존 듀이는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들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집-학교-학원을 순환하게만 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은 자신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빼앗겨 버렸다. 우리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교육사상이 프레네의 말을 기억해보자.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헛되이 쳇바퀴 돌게 하거나 로봇처럼 행동하게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는 이 간단한 명제에서 확실하게 들어난다.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은 줄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

로 늘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무엇인가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과열된 경쟁과 프로그램 홍수 속에 묻히고 있다. 시대는 변화되었고, 말 잘 듣는 착한 학생보다 생각하는 시민을 찾고 있지만, 청소년은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여전히 대상자, 수혜자이기만하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마을 속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이용 공간이 부족한 곳에는 열린 공간을 더 만들고, 어린이, 청소년을 환대 할 수 있는 공간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 청소년 100인 원탁 토론, 청소년 의회, 무엇이든지 해봐라는 대형 프로젝트는 보여주기는 좋지만 자칫 형식화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이 주눅들기 십상이며, 행정과 어른들의 활동력에 지배될 위험들이 크다.(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은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작은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도록 거드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 마을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보는 “시작된 변화”를 청소년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으로 확산해보면 어떨까?
- 교육 프로그램 제공보다 청소년이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청소년 협동조합, 각종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 전체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상상하더라도 실천은 작은 마을 단위(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마을)에서 벌여보고, 성취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면 어떨까?
- 어릴 때부터 놀이를 통해서 자발성, 공동체와 규칙 등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
- 학교와 마을, 도서관, 공공조직이 조금 더 민주적이라면 어떨까?

▶ 도서관인데 책 관련 활동은 없나요?

책 읽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 감수성을 키우고, 함께 둘러 앉아 이야기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지고, 관계가 생기며, 호기심이 생기고,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